



전문역량과 미래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서비스 향상

보도자료 Press Release



배포일시	2017. 6. 23.(금) 10:00 (총 7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	담당자	과장 최두수 담당 임수정
		전화번호	053-952-0366 070-7850-2223

3개월 전망(2017년 7~9월)

[기 온] 7월과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, 9월에는 평년보다 높겠음
 [강수량]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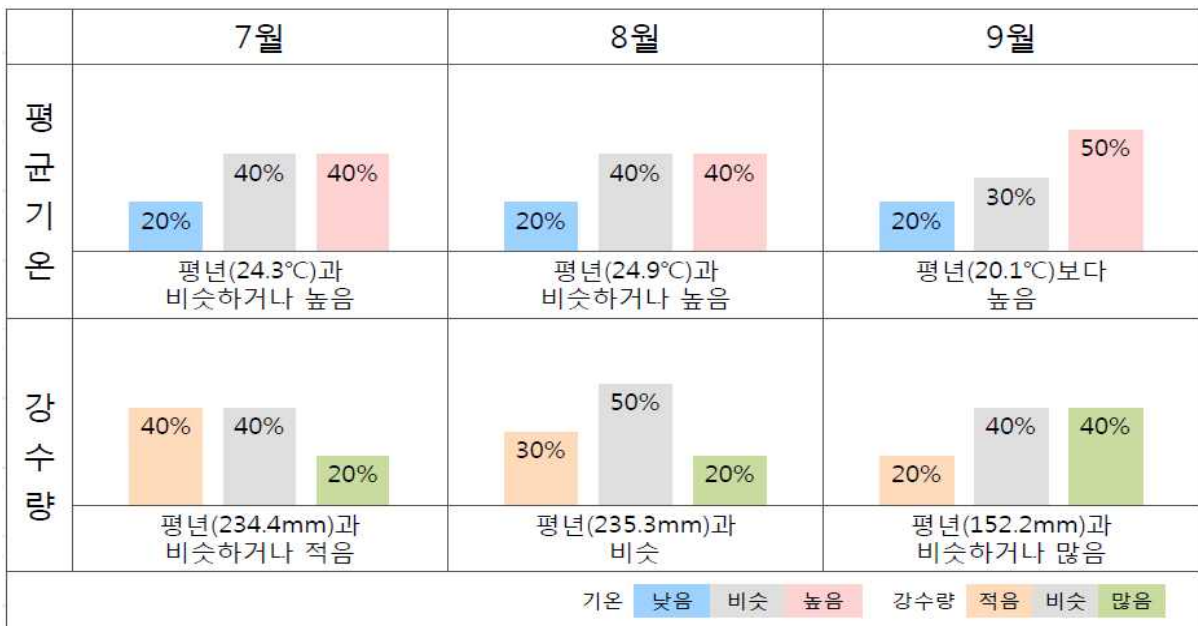
- (7월)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거나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으며, 후반에는 점차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음.
 (월평균기온)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
 (월강수량)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
- (8월)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겠음. 대기불안정과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.
 (월평균기온)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
 (월강수량) 평년과 비슷하겠음
- (9월)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그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.
 (월평균기온) 평년보다 높겠음
 (월강수량)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
- (엘니뇨/라니냐) 엘니뇨·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예보기간 동안 중립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붙임 :

1. 3개월 전망 요약
2. 최근 날씨 동향(2017년 4월 1일~6월 20일)
3.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(7~9월)
4. 최근 10년간의 특이 기상(7~9월)

붙임 1	3개월 전망 요약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[3개월전망(2017년 7~9월) 요약]



※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평년값과 평년 비슷 범위 기준표[대구·경북 평균]

기간 요소	7월		8월		9월	
	평년 (°C / mm)	평년 비슷 범위 (°C / %)	평년 (°C / mm)	평년 비슷 범위 (°C / %)	평년 (°C / mm)	평년 비슷 범위 (°C / %)
평균기온	24.3	-0.6 ~ 0.6	24.9	-0.6 ~ 0.6	20.1	-0.4 ~ 0.4
강수량	234.4	85 ~ 115%	235.3	85 ~ 115%	152.2	75 ~ 125%

【 알 림 】

- 3개월 전망은 "기상청 누리집→날씨→특보·예보→3개월 전망"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음 3개월 전망은 2017년 7월 24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

○ 4월

- 기온은 14.5℃로 평년(12.6℃)보다 높았으며(편차 +1.9℃), 강수량은 71.0mm로 평년(67.9mm)과 비슷하였음(평년비 104%).
- [기온] 이동성 고기압과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대구·경북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. 특히,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동해안 부근의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. 16일과 30일에는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℃ 안팎의 고온현상이 나타났으며,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음.
- [강수량]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한 후 그 후면으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자주 통과하여 비가 자주 내렸고, 후반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하였으나 대구·경북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. 5~6일과 17일에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으로 인해 비가 내렸으며, 11일에는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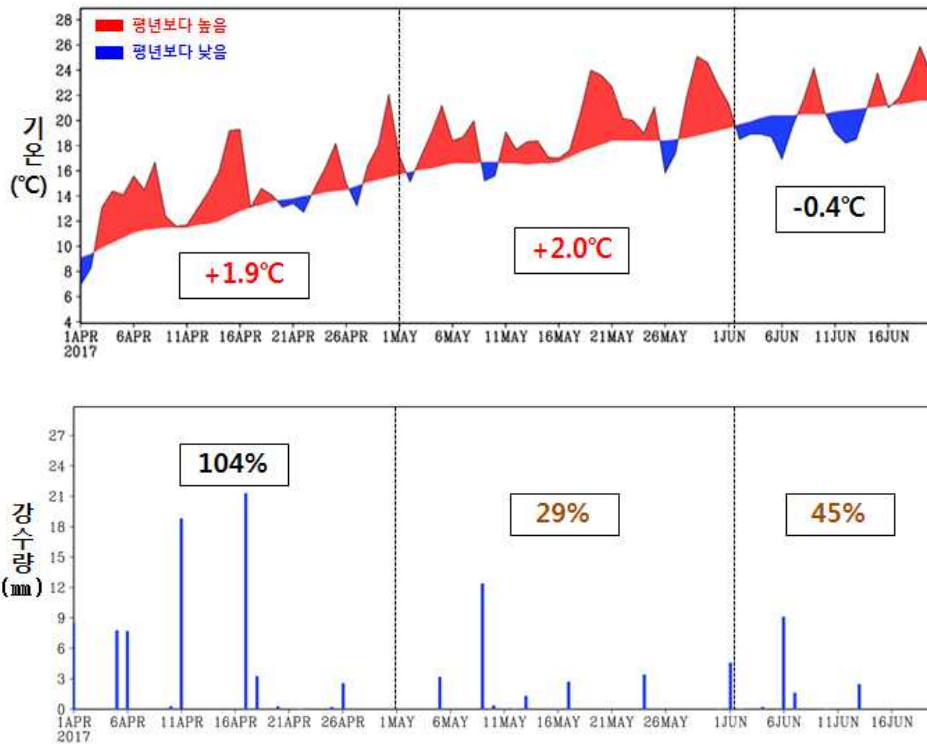
○ 5월

- 기온은 19.4℃로 평년(17.4℃)보다 높았으며(편차 +2.0℃), 강수량은 23.6mm로 평년(85.5mm)보다 적었음(평년비 29%).
- [기온]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풍 및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으며,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 동안의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대구·경북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음. 29~30일에는 낮 기온이 33℃ 이상으로 올라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음.
- [강수량]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구·경북 강수량이 평년보다 매우 적어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었음.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도 하였으나 그 양이 매우 적어 건조하였음. 5일과 12일에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으며, 9일에는 우리나라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. 13일과 24일에는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남동진하여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.

○ 6월 1~20일

- 기온은 20.0℃로 평년(20.4℃)과 비슷하였으며(편차 -0.4℃), 강수량은 18.2mm로 평년(39.3mm)보다 적었음(평년비 45%).
- [기온]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던 가운데 15일 이전에는 상층 한기의 유입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으나, 이후에는 서풍 또는 남서풍의 유입과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기온이 높았음. 특히, 18~19일에는 경상북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℃ 이상 올랐으며,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음.
- [강수량]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건조하였으며,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였으나 그 양이 매우 적어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음. 1일과 13일에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렸으며, 6~7일에는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.

○ (최근 3개월, 2017.4.1.~6.20.) 평균기온은 17.9℃로 평년(16.4℃)보다 1.5℃ 높았으며, 강수량은 113.6mm로 평년(220.1mm)대비 52%였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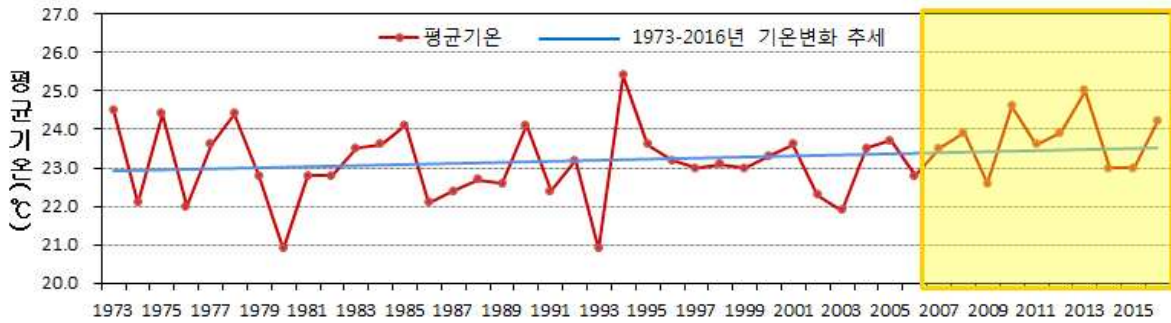
최근 3개월 평균기온(위)과 강수량(아래)의 일변화(2017.4.1.~6.20.)

붙임 3

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(7~9월)

○ 기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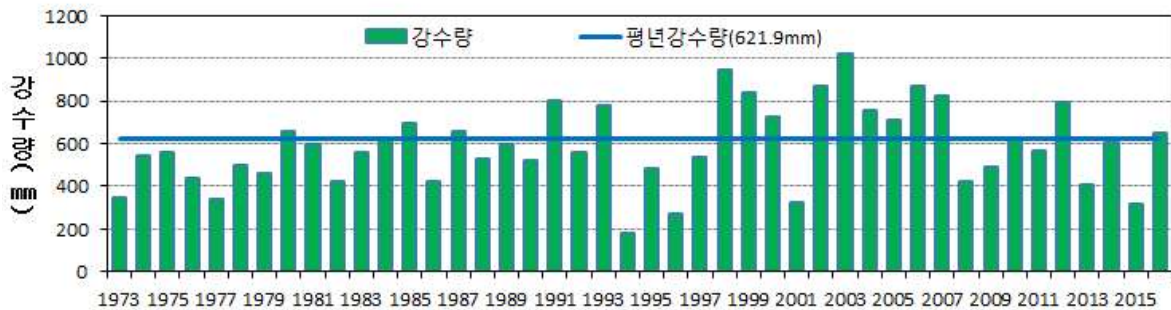
– 최근 10년(2007~2016년) 평균기온은 21.6℃로 평년(20.9℃)보다 0.7℃ 높았음.



연도별(1973~2016년) 평균기온(7~9월)

○ 강수량

– 최근 10년(2007~2016년) 강수량은 569.6mm로 평년(621.9mm)대비 92%를 기록하였음.



연도별(1973~2016년) 강수량(7~9월)

○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

기후 요소	단위	7월	8월	9월
평균기온(평년편차)	℃	25.0(+0.7)	25.4(+0.5)	20.7(+0.6)
평균 최고 / 최저 기온	℃	29.7 / 21.4	30.2 / 21.7	26.0 / 16.5
강수량 / 강수일수	mm / 일	207.9 / 14.8	205.8 / 14.3	155.9 / 10.8
일조시간	시간	150.4	166.3	155.2
열대야 일수(밤최저기온 25℃ 이상)	일	3.0	3.5	0.1
폭염 일수(일최고기온 33℃ 이상)	일	6.6	8.7	0.4

※ 대구·경북 자료는 9개 지점(대구, 포항, 울진, 영주, 문경, 영덕, 의성, 구미, 영천) 평균임

※ 최근 10년 기간 : 2007~2016년

※ 평년기간 : 1981~2010년

○ **고온 현상**

－ (2016년 8월)

- 대구·경북 폭염일수가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음
(폭염 일수 : 16.2[1위 2013년 16.8])
- 중국 대륙에 위치한 고기압으로부터 가열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, 강한 일사가 더해져 무더위가 지속되었음

－ (2015년 7월 21~31일)

- 열대야가 나타났음(열대야 발생일 : 26~30일 포항, 대구)
- 제12호 태풍 ‘할룰라’가 북상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을 밀어 올려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었고, 고온다습한 남서류가 유입되어 열대야가 나타났음

－ (2013년 7~8월)

- 1973년 이래 대구·경북 평균 최저기온은 가장 높았고,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음(편차(°C) : 평균 최저기온 +2.1, 평균기온 +2.4[2위, 1위 1994년 +3.1], 평균 최고기온 +2.9[2위, 1위 1994년 +4.0])
-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지속되면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났음

－ (2010년 8월 1일~9월 20일)

- 평균기온,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고, 평균 최고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음
(편차(°C) : 평균기온 +2.2, 평균 최저기온 +2.6, 평균 최고기온 +2.1[2위, 1위 1994년 +2.9])
-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었음

－ (2008년 9월 7~24일)

-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
(편차(°C) : 평균기온 +2.3, 평균 최고기온 +2.8)
-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났음
- 쌀, 배 등 아열대성 작물은 유례없는 풍작이었으나, 농작물 값이 하락하여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음

－ (2008년 7월 1~20일)

- 평균기온,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높았고, 평균 최저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음
(편차(°C) : 평균기온 +2.9[3위, 1위 1994년 +4.7], 평균 최고기온 +3.6[3위, 1위 1994년 +6.1], 평균 최저기온 +2.4[2위, 1위 1994년 +3.3])
-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었음
- 닭 수천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있었음

○ 저온 현상

－ (2014년 8월)

- 최고기온이 오르지 않으면서,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다섯 번째로 낮았음
(평균 최고기온 편차(°C) : -2.3[1위 1980년 -4.5])
- 전반에는 두 차례의 태풍 영향, 후반에는 상공에 찬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았음

－ (2009년 7월 21~31일)

-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,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네 번째로 낮았음
(편차(°C) : 평균기온 -3.2[1위 1988년 -4.5, 평균 최고기온 -2.2[1위 1988년 -4.0], 평균 최저기온 -2.3[1위 1993년 -3.7])
- 오호츠크해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동류가 유입되고 한기가 남하하면서 저온 현상이 나타났음

○ 건조 및 가뭄

－ (2016년 8월)

- 북태평양 고기압 및 중국 대륙의 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강수량이 적었음

○ 태풍과 많은 비

－ (2014년 9월 23~24일)

-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렸음
(일강수량(mm) [9월 극값] : 24일 영주 107.5[2위, 1위 1992.09.24. 176.5])
- 제16호 태풍 '풍왕'이 중국 동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후 강한 바람과 함께 다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음

－ (2014년 8월)

- 강수일수가 1973년 이래 가장 많았음
(8월 강수일수(일) : 20.0[1위], 일강수량(mm) [8월 극값] : 25일 상주 90.1[5위])
- 중순부터 연해주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발달하여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였고,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수렴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자주 내렸음

－ (2012년 8~9월)

-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(누적강수량(mm) : 9월 15~17일 포항 264.0)
- 제15호 태풍 '볼라벤'(8월 28일)과 제14호 태풍 '덴빈'(8월 30일), 제16호 태풍 '산바'(9월 17일)의 상륙으로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연이어 상륙한 최초 사례였음

－ (2010년 7월)

- 세 차례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음
- 열대저압부에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아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었음

－ (2009년 7월)

- 네 차례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음
-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